

2017
11



병리협보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Technologists News

등록번호 성북 라 00009호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전문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원활한 병리협보 배송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도로명주소 · 5자리 우편번호로 개인정보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02 COVER STORY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한국연구재단 KCI 등재학술지 선정

04 EDUCATION

2017 추계 분과학회
학술대회 안내

08 INTERVIEW

Digital Cell Morphology 리더
셀라비전

10 INFORMATION

「결핵안심국가」사업 추진 중간결과 발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일반봉사단 안내

협회 공식학술지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한국연구재단 KCI 등재학술지 선정

대한임상검사과학회(회장 양만길)에서 발간하는 공식학술지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가 2017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학술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연구재단은 8월 28일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2017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 결과를 공고했다. 이에 따라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Korean Journal of Clinical Laboratory Science)는 지난 2014년 12월 4일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 결과에서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것에 이어 이번 2017년도 평가를 통해 등재학술지로 승격되었다.

한국연구재단은 심사평을 통해 “임상병리사를 대표하는 학술지로서 인지도 및 학술적 가치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고 언급하며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는 오랜 역사를 가진 학회로부터 출간되는 것으로 논문의 다양성이 높고 온라인 심사제도의 구체성과 엄정성을 유지하고 있어 연구윤리(특히 생명존중 윤리)의 구체적 내용과 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면에서 계속)

홈페이지와 앱에서 추계 분과학회 학술대회 사전접수 중

※관련 안내 3면 참조

주최	날짜	장소	사전등록기간
임상면역검사학회	11.04(토)	신촌세브란스병원	10.27(금)
	13:00~18:00	본관 6층 대강당	18:00 까지
임상미생물검사학회	11.04(토)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10.27(금)
	11:00~17:45	소아임상제1강의실	18:00 까지
임상생리검사학회	11.04(토)	삼성서울병원 임병원	10.31(화)
	11:00~17:00	지하층 대강당	18:00 까지
임상핵의학검사학회	11.11(토)	신구대학교(성남)	11.03(금)
	09:00~18:00	국제관,서관,산학협력관	18:00 까지
임상화학검사학회	11.11(토)	삼성서울병원	11.03(금)
	14:00~18:00	본관 지하층 대강당	18:00 까지
임상수혈검사학회	11.18(토)	신촌세브란스병원	11.10(금)
	13:00~18:00	본관 6층 은명대강당	18:00 까지
임상검사정보학회	11.25(토)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11.17(금)
	12:30~18:00	의생명산업연구원 2층 대강당	18:00 까지
임상혈액검사학회	11.25(토)	신촌세브란스병원	11.17(금)
	13:00~18:00	본관 6층 은명대강당	18:00 까지



2017년 제2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배 탁구대회 개최 안내

우리 협회에서는 스포츠를 통한 임상병리사 회원 상호간의 친선 및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제2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배 탁구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17.11.11.(토)
 - ◆장소 : 코리아 탁구 체육관 (서울 강동구 천호동 234-6번지 일주빌딩 5층)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협회 공식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iOS

발행인 양만길 / 편집인 김상원
 편집위원 홍창식, 김철, 함경희 / 기자 서윤진
 디자인·인쇄 혜성디자인 Tel : 02)469-0577
 발행소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Tel : 02)3291-5435 Fax : 02)3291-5621

제 418호 병리협보 제작에 도움주신 분들

- Global Standard of Reference Lab.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이번 등재지 승격은 최승구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편집위원회의 꾸준한 관리와 변화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결과이다. 협회가 본격적으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선정을 위한 사업을 시작하며 최근 3~4년간 크게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2014년 최초 평가 당시 편집위원 및 위원장의 연구실적과 대외활동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수렴, 편집위원의 분야, 연구 실적, 논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절치부심했다. 이 밖에도 온라인투고 시스템과 투고규정을 정비하여 국영문 홈페이지를 별개로 운영함으로써 투고의 원활함을 도모했다. 주요 사업에 참여한 구본경 총괄간사(삼성서울병원)는 회원들의 이해와 관심을 독려하기 위해 병리협보를 통해 학회지를 소개하는 코너를 연재하기도 했다.

우리 협회 학술지는 1967년에 '대한임상병리사회지'로 창간한 오랜 전통이 있는 학술지다. 1995년 '대한임상병리검사과학회지', 2004년 '대한임상검사학회지'로 개명된 뒤 2014년부터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로 발행되고 있다. 대부분 논문은 임상실�험결과에 대해 실험적 혹은 통계적 방법 보고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술지는 임상병리사의 전문성과 사회성을 대외적으로 나타내고 대내적으로는 회원들 간의 성과 공유와 앞으로의 연구방향 등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재단에서도 '학회지에 소개된 새로운 사실을 학회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수준의 언어로 표현할 경우, 국가적으로 매우 큰 기대효과를 유발할 수 있음.'라고 평가한 바 있다.

실제로 올해는 방치된 일회용 물티슈의 위험성, 사카린의 암세포 증식 억제 효능, 백사장 모래의 감염 위험성 등 학회지에 소개된 새로운 사실이 대중매체를 통해 굵직한 정보성 뉴스로 보도되면서 공익적 역할을 수행, 많은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다.

양만길 협회장은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것은 협회 55주년 맞이 큰 선물"이라며 "앞으로도 논문의 질적 성장과 임상검사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 향상을 위해 협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최승구 위원장은 "이번 성과는 많은 회원 분들과 교수님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며 "등재지로 선정된 만큼, 더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 드린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엄격한 투고규정 준수, 인용지수 향상 등 우수등재학술지를 목표로 더욱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노력을 경주하고, 학술지의 가독성과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대한임상검사과학회 홈페이지 가입방법 안내〉

- 일반회원: www.kscls.or.kr 접속-학회 회원가입 클릭
- 저자회원: www.kjcls.org 접속-KJCLS e-Submission 클릭
-Create an Account 클릭

등재학술지 선정 심사평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는 오랜 역사를 가진 학회로부터 출간되는 것으로 논문의 다양성이 높은 편임. 웹 상에서 논문투고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긍정적임. 표현에서 특히 표나 그림 설명이 국문으로 되어있는 것 등은 논문의 특성상 모두 영문으로 할 필요가 있음. 또 임상과 관련된 논문이 많지만 영문으로 출판할 필요가 있음.

임상병리사를 대표하는 학술지로서 인지도 및 학술적 가치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음.

편집위원 및 위원장의 연구실적과 대외활동이 임상검사 학술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논문집의 구성체계가 양호하며 서지정보의 정확성이 있음.

온라인 심사제도의 구체성과 엄정성을 유지하고 있음.

논문초록이 논문의 전반적 요약 잘 포함하고 있음.

연구윤리의 구체적 내용과 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으며 엄정성을 유지하고 있음.

본 학술지는 분야별 IF 평균에 약간 못 미침.

약 2만명의 임상병리사들의 학회지이며, 학문분야에서의 영향력 및 활용도가 상승하고 있는 등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1명의 국제 객원 편집위원을 비롯한 총 13명의 대학 교수급 편집위원이 열심히 활동하는 것으로 생각되나, 상대적으로 경쟁하는 다른 학회지에 비해 편집위원 수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많은 국외 전문가와 국내 전문가가 보강이 되면 보다 체계적인 편집 위원 구성을 이룰 것으로 판단됨. 온라인 투고 시스템, 논문집 구성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고, 투고논문 심사제도 및 규정 등이 잘 마련되어 있으며, 심사가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많은 편집위원이 참여하고, 보다 폭넓은 전문가가 심사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음.

- 임상검사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학자들의 학술지의 성격을 가지며, 논문의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하지만, 자기인용 비율이 타 저널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인위적 인용지수 향상은 저널의 질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없음.
-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연구실적은 우수한 편이며, 학술지의 성격에 맞는 편집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논문집은 pubmed, crossref 등 서지정보를 잘 연동하는 등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심사제도 규정과 규정에 따른 심사제도의 흐름이 순서대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음.
- 영문 교정 및 초록의 자수 제한 등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우수함.
-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며, crosscheck 시행, 생명윤리법 관련 온라인 교육과정 등을 이수하는 등 엄정한 연구윤리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xml 도입, DOI 도입 등 학술지의 가독성과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이지만, 전체적으로 학문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높이기 위한 미래 발전 전략은 다소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1) 학술성:** 유사 학술지에 비해 학술적 가치가 우수한 논문이 게재되고 있고 질적 홍보 활동이 기술되어 있음
- 2) 편집위원회:** 초록(글자수 250자 관리, 키워드 수 준수), 참고문헌의 투고규정 미 준수가 간혹 발견, 외국인이 편집된 논문 수나 심사된 논문 수 미 제시됨.
- 3) 논문체제:** 투고규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투고자들이 투고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예 초록 글자수, 키워드 단어가 논문마다 3-8개로 편차 있음)가 있고 편집자들이 심사과정에서 이를 지적되지 않았고 논문집교정에서도 여과 없이 발행.
- 4) 윤리규정:** 잘 기술되어 있음. 특히 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및 운영이 구체적, 표절 등 위법에 대한 처벌규정. 특히 생명존중 윤리 준수가 돋보임. 논문표절 프로그램 가동 중
- 5) 학문분야:** 인용지수(IF)가 0.280이며 분야 평균 0.38보다 낮고 자기인용비율이 1.86으로 매우 높음. 이에 대한 대책은 미제 시. 발전 방안으로 타 학술지와 MOU체결이 언급되었으나 구성적인 제시가 없음. 국제학술지로 발전 부분대 대한 기술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지 않음



미니인터뷰
Interview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50년사: 명칭과 KCI 등재에 대하여」 관련

편집위원회 **구본경** 총괄간사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Q. 우리 협회의 공식 학술지는 ‘대한임상병리사회지’로 1967년 창간되어 1995년에는 ‘대한임상병리검사과학회지’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2004년에 ‘대한임상검사학회지’, 본격적으로 한국연구재단의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 등재를 준비하면서 2014년에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Korean Journal of Clinical Laboratory Science, KJCLS)’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1967년 창간된 학술지는 명칭이 ‘대한임상병리사회지’로 되어있어 학회지가 아닌 기관지로 분류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업무범위 확대에 따라 학회지 명칭이 조금씩 변경되었고 2014년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로 변경, 등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과학(Science)”이라는 단어를 삽입하게 된 배경은 우리 학자, 연구자, 임상병리사들이 과학기술전문인력으로서 과학기술적 근거를 토대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미 미국, 영국 등 영미권 임상병리사 학술단체는 1974년을 시작으로 1990년대에 Science를 포함하여 명칭을 변경하였고, 2000년 국제임상병리사연맹도 이 같은 변화에 따라 IAML(Technologists)에서 IFBLS(International of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로 개명하였습니다.

Q. 학술지의 KCI 등재 작업을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 고백하자면, 과거의 저는 협회나 학회, 학술지, 논문, 초록에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2011년 파트장 직을 수행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스스로에게 약속했고 향후 7년 이내에 논문을 10편 이상 쓰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협회의 공식 학술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사한 결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998년 학술지 등재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우리 협회 학술지는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전문학회 설립의 지연 등으로 학술지 등재 평가를 신청한 적이 전무하였습니다. 선배로서 이미 등재작업이 완료된 타 의료기사 협회와 비교하여 후배들에게 매우 부끄러웠고, 후배로서는 선배 임상병리사들이 마련한 학술지의 오래된 역사가 평가절하되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이에 등재 필요성에 공감한 양만길 협회장님을 비롯한 편집위원회, 중앙회 선생님들과 뜻을 모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세익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였고 (1) 학회 개명, (2) 학회 홈페이지 구축 (3) 과거 논문(1967-2011년) 1,000여편 검색창 구축 (4) 제 규정 수정 보완 (5) 편집위원회 위원 재구성 등의 순으로 등재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병원 사원 대표협의회에서 비보직자 직급명칭 개선 작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당시를 계기로 직업, 직급, 직위, 직책 명칭에 대한 불평등 해소 및 학문, 학회, 면허, 자격에 대한 국영문 명칭 일치화에 대한 자료가 있어서 학술지평가 사업, 학술발전 사업, 정책 사업에 일조할 수 있었습니다.

Q. 2016년과 2017년 평가를 비교해보면 잃었던 점수를 상당 부분 만회하였는데, 어떤 노력이 있었나요?

2016년도 평가표		2017년도 평가표																																			
<table border="1"> <caption>2016년도 학술지평가 결과</caption> <tr> <th>평가항목</th> <th>평가점수</th> <th>비율(%)</th> <th>비율(%)</th> <th>비율(%)</th> <th>비율(%)</th> </tr> <tr> <td>학술지평가</td> <td>80.0</td> <td>48.12</td> <td>7.28</td> <td>41.4</td> <td>100</td> </tr> <tr> <td>학술지평가</td> <td>80.0</td> <td>48.12</td> <td>7.28</td> <td>41.4</td> <td>100</td> </tr> </table>	평가항목	평가점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학술지평가	80.0	48.12	7.28	41.4	100	학술지평가	80.0	48.12	7.28	41.4	100	<table border="1"> <caption>2017년도 학술지평가 결과</caption> <tr> <th>평가항목</th> <th>평가점수</th> <th>비율(%)</th> <th>비율(%)</th> <th>비율(%)</th> <th>비율(%)</th> </tr> <tr> <td>학술지평가</td> <td>85.0</td> <td>50.00</td> <td>7.69</td> <td>42.4</td> <td>100</td> </tr> <tr> <td>학술지평가</td> <td>85.0</td> <td>50.00</td> <td>7.69</td> <td>42.4</td> <td>100</td> </tr> </table>	평가항목	평가점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학술지평가	85.0	50.00	7.69	42.4	100	학술지평가	85.0	50.00	7.69	42.4	100
평가항목	평가점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학술지평가	80.0	48.12	7.28	41.4	100																																
학술지평가	80.0	48.12	7.28	41.4	100																																
평가항목	평가점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학술지평가	85.0	50.00	7.69	42.4	100																																
학술지평가	85.0	50.00	7.69	42.4	100																																

→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지만 모든 논문원고에 대하여 직접 형식 심사(Review of Style & Format) 및 원고편집

Manuscript Editing)을 실시하였고 게재논문에 한하여 논문표절을(논문유사도검사결과서) 업로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기존에 외국인 원어민 강사를 통해 진행하던 영문 초록 교정을 영어논문번역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영문 초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사협회 논문투고규정(AMA style)를 기준으로 논문투고규정을 개정하여 투고자 및 심사자가 본문 내 문헌 인용 시 문구 오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Q. 작업하시면서 어려우셨던 점
→ 학술지 평가를 받아 본 경험이 없었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특히 피인용지수(Impact Factor)에 대한 준비가 안되어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Q. 대한임상검사과학회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요?

→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KCI 등재지 자격을 유지하고 피인용지수(Impact Factor) 향상시키는 것 입니다. KCI에서 피인용지수는 특정기간 동안(직전 2년간) 본 학술지에 수록된 하나의 논문이 타 학술지의 다른 논문에 인용된 평균 횟수입니다. 동일 분야 학술지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수’를 ‘학술지의 논문이 인용된 총 횟수’ 나눈 값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Q. 논문 작성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주기적으로 저널리뷰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임상검사과학회홈페이지(<http://www.kscls.or.kr>) 내 관련 웹사이트 메뉴에 국내외 임상병리학, 병리학, 임상병리검사학, 의생명과학 학술지 사이트 링크를 정리해놓았습니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017 추계 분과학회 학술대회 안내



가. 일정

주 최	날 짜	장 소	사전등록기간	담당자	연락처(문자요망)
임상면역검사학회	11.04(토)	신촌세브란스병원	10.27(금)	서명석	010-3139-3647
	13:00~18:00	본관 6층 대강당	18:00 까지		
임상미생물검사학회	11.04(토)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10.27(금)	함정일	010-5495-7660
	11:00~17:45	소아임상제1강의실	18:00 까지		
임상생리검사학회	11.04(토)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10.31(화)	박진우	010-7121-3772
	11:00~17:00	지하층 대강당	18:00 까지		
임상핵의학검사학회	11.11(토)	신구대학교(성남)	11.03(금)	김진태	010-3888-8531
	09:00~18:00	국제관,서관,산학협력관	18:00 까지		
임상화학검사학회	11.11(토)	삼성서울병원	11.03(금)	이승모	010-2083-6184
	14:00~18:00	본관 지하층 대강당	18:00 까지		
임상수혈검사학회	11.18(토)	신촌세브란스병원	11.10(금)	김정남(행정)	010-8844-3196
	13:00~18:00	본관 6층 은명대강당	18:00 까지	황한나(학술)	010-2902-5057
임상검사정보학회	11.25(토)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11.17(금)	송현근	010-9091-7242
	12:30~18:00	의생명산업연구원 2층 대강당	18:00 까지		
임상혈액검사학회	11.25(토)	신촌세브란스병원	11.17(금)	문호영(행정)	010-5530-9352
	13:00~18:00	본관 6층 은명대강당	18:00 까지	김지현(학술)	010-6334-9890

나. 평 점 : 4평점

다. 등록 방법

- 사전등록 : 웹사이트(www.kamt.or.kr)상 신용카드 or 가상계좌 결제
- 현장등록 : 각 분과별 학술대회장에서 현금결제

라. 교육비

- 사전등록 : 80,000원, 회원은 40,000원
- 현장등록 : 90,000원, 회원은 50,000원
- (※ 회원 : 협회정관 제3장 제7조에 의거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

마. 환불 규정

- 사전접수 기간 : 금융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환불
- 사전접수 마감 후 : 교육직전일 23:59분→교육비의 50%(직, 간접비 공제)

- 교육 시작일 이후 : 환불 불가

- 신청 방법 :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메일(kamt21@bill36524.com)로 접수

바. 유의사항

- 자세한 문의는 각 분과학회로 연락하여 주시고 상세일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명시된 사전등록기간 외에 연장등록은 없습니다.
- 강의장 수용인원이 제한된 관계로 결제인원에 따라 사접등록 마감 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등록만 하시고 불참할 시에는 평점 이수가 불가하오니 이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출결관리는 전자출결시스템을 시행합니다. 보수교육 참석 회원은 반드시 입실과 퇴실 2회 전자출결 체크를 실시하며, 교육이수 시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 학술대회 별 세부사항 안내

▶ **임상면역검사학회**

- 1) 일시: 2017. 11. 4 (토) 13:00 ~ 18:00
- 2) 장소: 신촌 세브란스병원 본관 6층 은명대강당
- 3) 세부일정

시간	프로그램
11:00 ~ 14:00	등록 및 접수
11:00 ~ 16:00	포스터 전시
13:00 ~ 13:20	총회보고 및 개회식
13:20 ~ 17:00	구연발표 및 특강
17:00 ~ 18:00	학술상(구연, 포스터) 시상식, 행운권추첨 및 폐회식

▶ **임상미생물검사학회**

- 1) 일시: 2017. 11. 4 (토) 11:00 ~ 17:45
- 2) 장소: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소아임상제강의실
- 3) 세부일정

구분	프로그램			
	대강당	중강당	소회의실	소회의실B
09:00~11:00		미생물전문 임상병리사 한일국제심포지엄	포스터 전시	부스전시
11:00~	접수	평의원 회의		
11:30~12:30	런천심포지엄			
12:30~13:30			포스터 발표	
13:30~14:00	개회식: 축사 및 시상		포스터 전시	
14:00~15:00	특별강연 연세의대 이경원 교수			
15:00~15:15	CoffeeBreak			
15:15 ~15:45	심포지엄 1 : 다제내성세균의 이해 (연세의대 이혁민 교수)			
15:45~16:15	심포지엄 2 : 다제내성세균의 최신검사법 및 치료(서울의대 김택수 교수)			
16:15~16:30	Coffeebreak			
16:30~17:00	심포지엄3 : 다제내성 결핵(서울의대 박경운 교수) (삼성서울병원 정태원)			
17:00~17:30	심포지엄4 : 다제내성 세균의 검사의 실제 (삼성서울병원 정태원)			
17:30~17:45	시상 및 폐회식			

▶ **임상생리검사학회**

- 1) 일시: 2017. 11. 4 (토) 11:00 ~ 17:00
- 2) 장소: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 3) 세부일정

시간	프로그램	장소	
11:00 ~ 12:40	등록 및 접수	지하1층 대강당	
12:40 ~ 13:20	개회식 및 총회 (시상 및 특강) ※특강: 김기봉 (삼성서울병원)	지하1층 대강당	
13:20 ~ 17:00	구연발표	신경계 및 기타생리 구연발표	지하1층 대강당
		순환계 시연	지하1층 제1세미나실
		순환계 구연발표	지하1층 제2세미나실
		호흡계 구연발표 및 시연	지하2층 제3세미나실
17:00 ~ 17:05	폐회	지하1층 대강당	

▶ **임상핵의학검사학회**

- 1) 일시: 2017. 11. 11 (토) 9:00 ~ 18:00
- 2) 장소: 신구대학교(성남)
- 3) 세부일정

구분	프로그램	시간	내용	장소
	등록 및 접수	09:30~14:00	- 사전 및 현장(임상분과 해당)	국제관 로비
1부	핵의학 기초	10:00~12:00	- 핵의학기초 컨퍼런스 (Brain 중심 강의)	국제관 국제회의실
	방사선안전관리	09:00~12:00	- 방사선안전관리최신현황 (방사선진흥협회, 직장교육3시간)	서관 문화콘텐츠관
	방사선의약품	10:00~12:00	- 방사선의약품 GMP 컨퍼런스	산학협력관 세미나실
중식				
2부	개회선언	13:30~14:00		국제관 대강당
	국민의례			
	내/외빈 소개		- 주요 내/외빈 인사 소개	
	환영사		- 이승겸 신구대학교 총장(예정)	
	축사		- 노경운 회장	
	격려사		- 내외빈	
	시상		- 학술 Award : 1명	
특강	14:00~14:50	- 서울대학교병원 강건욱 교수님		
연제발표		15:00~17:30	- PET/CT & Cyclotron Session	국제관 대강당
			- In-Vivo Session	서관 문화콘텐츠관
			- In-Vitro Session	국제관 국제회의실
3부	초청공연	17:30~17:40	- 신구대학교 방사선과 응원단	국제관 대강당
	발표시상	17:40~17:45	- 우수발표자 시상	
	행운권추첨	17:45~18:05	- 000명	
	폐회선언	18:05~18:10	- 노경운 회장	

- 4) 슬로건: Together with Nuclear Medicine, Proud of Nuclear Medicine
- 5) 참가대상: 전국 병원 핵의학과 - 핵의학기술학회 정회원 : 730 여명

▶ 임상화학검사학회

- 1) 일시: 2017. 11. 11 (토) 13:00 ~ 18:00
- 2) 장소: 삼성서울병원 본관 지하층 대강당
- 3) 세부일정

시간	프로그램
13:00 ~ 14:00	등록 및 접수 (인증심사 평가자료의 실제, 일반화학 검사의 이해)
14:30 ~ 16:00	인증심사 평가의 실제
14:30 ~ 14:50	(1) 시약 로트 변경시 parallel test - 삼성서울병원 김동인
14:50 ~ 15:10	(2) 동일종목 장비간 비교평가시험 - 서울성모병원 이정중 파트장
15:10 ~ 15:30	(3) 월간 내부 정도관리 평가 - 세브란스병원 원재희 파트장
15:30 ~ 16:00	(특강) TDM의 이해 - 삼성서울병원 이수연 교수
16:00 ~ 16:30	포스터 및 전시관람, Coffee Break
16:30 ~ 17:00	(1) 당뇨검사의 이해 - 상지대학교 정현근 교수
17:00 ~ 17:30	(2) 간기능검사의 이해 - 삼성서울병원 이승모
17:30 ~ 18:00	(3) 콩팥기능검사의 이해 - 서울성모병원 차경호 팀장
폐회식	

▶ 임상수혈검사학회

- 1) 일시: 2017. 11. 18 (토) 13:00 ~ 18:00
- 2) 장소: 신촌세브란스병원 본관 6층 은명대강당
- 3) 세부일정

시간	프로그램
13:00 ~ 15:00	등록 및 접수
13:30 ~ 14:00	개회식 - 학회장 인사 - 축사 - 격려사 - 공로상 및 학술상 시상
14:00~14:40	특강1
14:40~15:00	구연1
15:00~15:20	구연2
15:20~15:40	Coffee Break
15:40~16:20	특강2
16:20~16:40	구연3
16:40~17:00	구연4
17:00~17:30	포스터 학술상 시상
17:30~18:00	폐회 및 기념촬영

- 4) 초록접수 및 마감

- 구연 및 포스터 초록 접수 마감일 : 2017년 11월 1일(수)
- 자료 올리는 방법 : www.webhard.co.kr 접속 → ID : KAMT5591, PW: 55915591 → Guest폴더 → 올리기 전용 → 추계학술대회 → 수혈분과 폴더에 자료 업로드

▶ 임상검사정보학회

- 1) 일시: 2017. 11. 25 (토) 12:30 ~ 18:00
- 2) 장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 2층 대강당
- 3) 세부일정

정도관리	문지숙 (신화메디)
폐기능	이상범 (동수원 병원)
검사오류 대처방법	이희정(인천사랑병원)
최신기법(NGS)	김갑진(ThermoFisher)

▶ 임상혈액검사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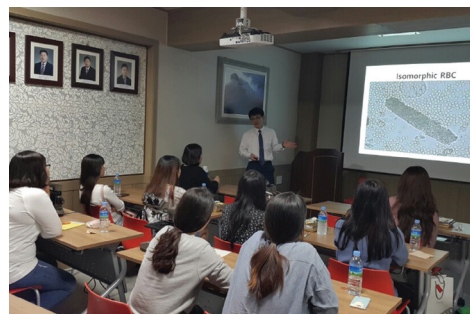
- 1) 일시: 2017. 11. 25 (토) 13:00 ~ 18:00
- 2) 장소: 신촌세브란스병원 본관 6층 은명대강당
- 3) 세부일정

시간	프로그램
13:00 ~ 14:00	등록
13:30 ~ 14:00	개회식 및 시상
14:00 ~ 14:40	구연1
14:40 ~ 15:40	특강 1. 혈액세포의 탄생과 분화 이야기(서울의대 이동순 교수)
15:40 ~ 16:00	포스터 및 전시부스
16:00 ~ 17:00	특강 2. 적혈구의 형태학적 이상과 관련 질환(고대안산 장은아 교수)
17:00 ~ 17:50	구연 2.
17:50 ~ 18:00	폐회 및 기념촬영

대구광역시임상병리사회

- 명예기자 이호범

일반검사(요화학, 요검경) 무료 심화교육 실시



대구광역시임상병리사회(회장 김영만)는 9월 27일 대구시회 회관 2층 강의실에서 대구시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일반검사(요화학, 요검경) 무료심화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월 실시된 근전도 무료심화교육에 이은 두번째 무료 심화교육

으로 대구시회 회원 20여명이 참석하였다. 배영철(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회원의 재능 기부 강의로 이론과 실습으로 나누어 2시간여 동안 진행되었다.

대구시회에서는 이날 교육을 위해 저녁식사와 간단한 다과를 준비해 회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참석자 대부분이 중소병원 또는 개인의원원에 근무하는 회원들로 실습을 위주로 한 교육이 실무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김영만 회장은 "중소병원에서 근무하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무료심화교육을 실시하여 좀 더 많은 교육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앙회

오는 8일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 최초 로그인 시, 개인정보 업데이트 필수



대한임상병리사협회(협회장 양만길)는 협회 홈페이지를 오는 8일 리뉴얼 오픈한다고 밝혔다. 회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메뉴를 위주로 메인화면이 변경되었으며,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른 전자출결과 회원들의 요청이 많았던 온라인보수교육 통합 운영, 부분평점 신청 및 인정 등 새로운 기능을 위한 대대적인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졌다. 우보미 정보통신사는 온라인보수교육 개선을 위하여 선오픈된 것으로 계속적인 검토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2차 고도화 등 개선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활동보고서 (2017. 10. 1~10. 31)

- ▶ 지난 12일 제421차 상임이사회 및 집행부 회의를 개최했다.
- ▶ 지난 12일 서울대학교병원 전산교육장에서 홈페이지 리뉴얼 초안 점검 작업을 실시했다.
- ▶ 지난 13일 감염관리위원회는 제5차 회의를 실시했다.
- ▶ 지난 19일 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는 각 분과학회별 전문임상병리사 자격증 운영 표준화 및 홈페이지 리뉴얼 관련 회의를 실시했다.
- ▶ 지난 26일 편집위원회는 2017년도 학술지 평가 리뷰 등을 위해 회의를 실시했다.

시도회

서울특별시임상병리사회

● 명예기자 김희성

서울특별시임상병리사회 제5차 중소병의원 학술제 개최



서울특별시임상병리사회(회장 김건한)는 지난 21일 중앙대학교병원 중앙관 4층 송봉홀에서 “도약하는 임상병리사(부제: 중소병의원 네트워크 공유-거점병원 활성화)”를 주제로 제5차 중소병의원학술제를 개최하였다.

2013년 시작하여 5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학술제는 서울시회 중소병의원위원회 주최, 중소병의원 회원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학술과 소통의 장이다.

학술제는 중소병의원 정도관리(박홍철, 삼광의료재단), 감염관리임상병리사 업무와 역할(임현미,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폐기물 안전관리(원준호, 대항병원)로 구성되었다.

지난 4차 중소병의원학술제 설문조사를 토대로 회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무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주제로서 다양한 사진과 구체적인 사례중심의 내용 덕분에 참석하신 회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 밖에도 대만 타이페이 대표단 2명을 초청하여 양 사회간의 학술 교류하는 시간을 갖고 2부에서 Chueh Yueh Yuanms 회원의 “대만 취신클리닉 정도관리 프로그램 적용과 관리” 특별 연제 발표를 진행했다.

서울시회는 회원들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 신촌연세병원 최용성 회원의 중소병의원 Q&A 시간(혈액학, 공단검진, 혈액은행, 조직 세포병리)을 마련, 중소병의원 회원들이 관련 업무에 관해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였다.

시상식에서는 부민서울병원 이재영 회원 “중소병의원에서의 원가 분석과 평가”가 최우수포스터상을 받았고, 신촌연세병원 오승곤 회원 “결핵균의 특징과 결핵균 검사법 및 치료법”과 대항병원 원준호 회원 “직장 유암 중 34예를 통한 Ki-67, Chromogranin A, Synaptophysin 면역조직화학염색”과 목동힘찬병원 정용희 회원 “골형성과 골흡수의 표지자와 골밀도검사, 골절위험도평가의 상관관계”가 우수포스터상을 받았다.

김건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랜 기간 동안 학술제를 준비한 위원회와 집행부의 노고를 격려하고 “학술제가 중소병의원회원들의 소통과 화합의 기회가 되고 실무위주의 강의 내용과 Q&A시간을 통해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017년 중앙회 및 시도회 보수교육 일정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 및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체명	교육장소	교육예정인원	교육일자	교육평점	교육과목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온라인(에듀센터)		2017.12 예정	1~8평점	혈액학, 생리학, 임상화학, 조직세포 등
인천시회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서구) 3층 대강당 (마리아 홀 320석)	320	2017.11.18	4평점	폐기능검사 검진기관 평가문항 분석 임상검사 정도관리의 이해 CBC측정오류의원인과 대처방안
대전시회	유성호텔	300	2017.12.07	2평점	임상병리사 윤리교육 정도관리
강원도회 춘천분회	춘천 강원대학교병원	152	2017.11.23	1평점	채혈
강원도회 동해,삼척분회	동해병원 강당	25	2017.11.17	1평점	근전도 검사
강원도회 강릉분회	강릉보건소	100	2017.11.22	1평점	의료폐기물 관리
강원도회 속초,고성,양양분회	속초의료원	20	2017.11.24	1평점	미생물검사
강원도회 원주분회	원주성지병원	40	2017.11.24	1평점	수혈 전 검사 및 관리
강원도회 태백분회	태백병원 진단검사의학실	13	2017.11.24	1평점	폐활량 검사소개 분자병리의 이해 병원미생물 검사의 최신 지견
충북도회	청주대학교 청암홀	100	2017.11.11	4평점	신경생리학 검사 심전도의 이해
전북도회	전북도회 협회 사무실	100	2017.11.25	4평점	피부암 및 질환 혈청학의 정도관리 혈액학의 이해와 정도관리
제주도회	한라컨벤션센터 컨벤션홀 지하층	250	2017.11.18	4평점	분자생물학 임상화학 미생물학 미생물학 수혈의학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업체탐방

“우리의 역할은 혈구 형태 분석의 표준을 제공하는 것” Digital Cell Morphology 분야의 리더, 셀라비전(CellaVision)!

정호성 대표

스웨덴은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4위의 생명과학산업의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연구부터 개발까지 대학, 연구소, 기업이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활발한 산학협동에 있다. 또한 정부가 의료정보시스템과 연구자의 특허권 보장, 신생기업 창출을 위한 지원 제도 등을 오래 전부터 구축, 연구자들의 활용과 시장진출을 돕고 있다. 스웨덴 생명과학분야 기업의 93%가 산학협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을 정도다.

인구 1명당 생명과학 기업수가 세계최고 수준인 스웨덴에는 생명공학 클러스터 5곳, 스톡홀름-옵살라, 룬드-말뫼, 고텐버그, 우메오, 린쇼핑이 전국에 산재해있다. 이중 이번에 우리가 알아볼 기업 셀라비전(CellaVision)의 본사는 룬드-말뫼 지역에 위치해있다. 룬드에는 스웨덴 최고의 명문대학, 룬드대학교(Lund University)가 있는데, 셀라비전도 룬드대학교와의 긴밀한 산학협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셀라비전은 혈구 형태 판독에 관련된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15년간 축적된 빅데이터에 인공지능을 접목시킨, 환자의 혈구형태를 판독하는 혈액 검사에 특화된 인공지능 장비라고 볼 수 있다. 즉, 기존에 염색된 혈구의 모양, 형태, 과립 유무, 색깔 등을 직접 현미경으로 관찰하던 업무를, 이제는 Digital Cell Morphology장비를 이용하여 1차적으로 선별된 혈구 형태 분석을 현미경이 아닌 대형 화면을 통해, 여러 명의 전문가가 동시에 확인하고 판별 할 수 있는 혈구형태 분석 자동화 시스템이다.

염색된 슬라이드를 장비에 input 하면, 장비 내 현미경이 자동으로 환자 Slide의 Ideal Zone을 찾아내고, 1개의 혈구 각각 마다, 360개씩의 차별화된 특징을 알고 있는 인공지능 DB 와 환자의 혈구 형태를 실시간으로 비교하여 Myeloblast에서 Plasma Cell까지, Macrophage에서 Malaria까지 구분하고, 이를 디지털 사진으로 촬영하여, 종류별로 분리된 혈구형태의 결과를 화면으로 보여준다.

WBC, RBC, Body Fluid까지 적용이 가능하며 WBC 100개 Count 기준 1분 30초가 소요된다고 한다. 촬영된 혈구사진은 의료기관 내 서버에 저장 가능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동시에 여러 곳에서 조회, 확인이 가능하다.

개인 PC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전용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이 1차 테스트까지 완료된 상태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가 Report 되도록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셀라비전은 자동 혈구형태 분석기 개발을 위해 1994년 혈구분석 전문가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2001년 최초로 세포형태학 검사의 자동화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하며 <Digital Cell Morphology>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유럽 내에서는 임상병리사가 환자의 가검물을 취급하는데다 장시간 현미경 사용에 따른 후유증으로 인하여 힘든 직업으로 인식되고, 인구고령화와 개인의 복지가 우선시 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고용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셀라비전은 반복적인 업무에 대한 자동화 요구와 각 분야별로 전문화 되어가는 진단 검사 분야의 트렌드에 주목하여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다. 혈구 분석의 기본적인 반복 업무는 자동화 장비를 이용하여 1차 검증을 하고, 이후 판독은 전문가 집단(혈액전문임상병리사)에서 대형 화면을 보면서 시행하는 시대를 이끈 도전이었다.

본사 직원의 규모는 약 180명인데, 이중 R&D분야에만 120명이 근무하고 있다.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연간 4,000대 이상이 판매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병원에서 Hematology 장비 도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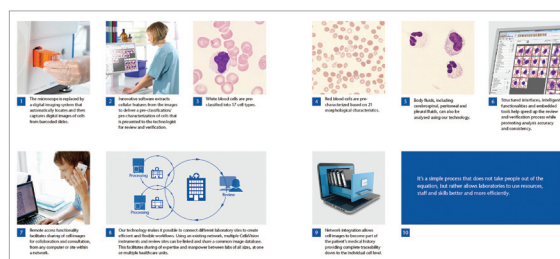
Digital Morphology 장비를 동시에 구매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Hematology 추진시 필수 장비로 병원에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한다. 혈구형태 분석 및 분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DB는 전세계 대학, 연구소, 의료기관의 의견을 제공받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병원을 비롯 7개 기관의 진단검사의학과에서 12대의 장비를 도입, 사용하고 있다. 현재 셀라비전은 전세계 시장점유율 98%를 자랑한다. 내년부터는 타 업체에서도 <Digital Cell Morphology> System을 개발 출시할 계획이다. 셀라비전은 오히려 이를 좋은 기회로 여기고 있다. 이미 수많은 관련 기술 특허와 15년 이상 축적된 인공지능망 DB를 갖추고 있는데다 Digital Cell Morphology 대한 인지도가 올라가면 시장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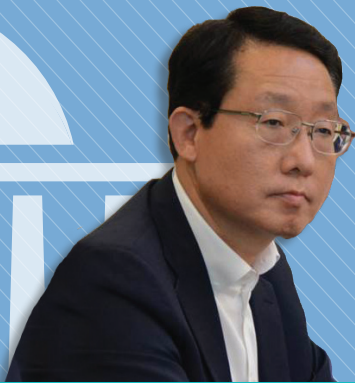
셀라비전의 전세계 공급은 Sysmex, Beckman Coulter, Siemens 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진행되고 있다. 한국 내에서 셀라비전의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정호성 대표는 임상병리학 전공을 바탕으로 스웨덴 본사와 파트너사들 간의 유기적인 협조 및 국내 마케팅, 영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주한스웨덴무역투자대표부의 유일한 진단의료 분야 담당자로서 ‘일당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서의 본격적인 홍보는 작년 9월부터 시작되었다. 중국 진출 이후 아시아 시장을 분석하던 셀라비전은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임상병리사의 지적 수준, 의료에 대한 많은 관심과 높은 이해도를 보이는 국민들의 성향에 주목, 주한스웨덴무역투자대표부를 통해 지사 운영을 시작했다.

정호성 대표는 셀라비전의 추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Bone Marrow 분석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 이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진행중” 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5회 AAMLS학회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동안 많은 분들께서 관심과 염려를 보여주셨다”며, “셀라비전이 지향하는 것은 정확한 판별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임상병리사들의 전문적인 2차 판독을 돕고 전문임상병리사 제도를 정착시켜 효율적인 검사 업무를 돕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 국정감사 특집



양승조 의원, 2차 상대가치점수 개정 부작용 지적 하며 개선책 마련 촉구

—지난 9월, 제5회 AAMLS 폐회식 당시 2차 상대가치점수 개정의 개선 필요성 언급

더 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의원(충남 천안시병)은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에서 열린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2차 상대가치점수 개정 부작용을 지적하며 기본검사에 대한 별도 보상 마련 등 개선을 촉구했다.

양승조 의원은 2차 상대가치 개편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동시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 가산율 조정 및 다양한 가산제도를 단계적으로 상대가치에 통합해 취약지 및 인력 가산 등 합리적인 가산체계를 올 11월까지 마련해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 보고할 예정이고 심평원도 보건복지부의 보고를 면밀히 검토해서 합리적인 건강보험 수가 체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3차 상대가치 개편까지 기본 의료검사 부분에 대한 의료 질 하락을 막기 위해 별도로 보상을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의원은 의료계의 필수적인 상대가치 점수 인하로, 지역 병의원급의 검사실 운영 중단에 따른 임상병리사들의 처우 및 고용 악화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의료공공성 확보가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 의료공공성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폭 인하된 다빈도 검체검사들은 일차의료 필수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개원가에서는 수가가 맞지 않아 검사실 폐쇄, 저가 장비 도입 등 의료 질 하락 사태가 벌어지는 상태라며 일부 의원은 벌써 임상병리사 해고와 인원 감축을 하고 있으며, 향후 각종 의료검사의 주축인 일차의료기관과 동네 검사실 기능이 점차 제구실을 다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출처: 의협신문

국시원, 2019년부터 임상병리사 국가시험 기출문제 공개 결정

내년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 5개 직종을 시작으로 보건의료관련 국가자격시험 기출문제가 단계적으로 공개된다. 임상병리사의 경우, 2017년 하반기부터 공개된다.

자 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 따르면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우선 내년 상반기에 한의사 시험문제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기출문제를 각각 공개할 예정이다.

2019년 상반기에는 약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약사가, 하반기에는 임상병리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안경사, 영양사 문제가 각각 공개된다. 이어 2020년 상반기에는 조산사, 하반기에는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장애인상담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언어재활사, 의지보조기 시험이 순차적으로 각각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의사, 치과의사 예비시험 및 의무기록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실기시험은 현행과 같이 비공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의원의 문제제기 이후 타기관 및 해외사례를 조사했고, 2016년 12월과 2017년 2~4월에 보건 의료인 국가시험위원회와 23개 직종별 시험위원회를 잇따라 개최, 올해 6월 필기시험 문제공개 추진계획안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가시험(수능, 공무원채용시험 및 기술자격시험 등)이 출제문제를 공개하고 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기존 비공개 하던 직종(전문자격시험)의 시험문제를 지난 2013년 이후 전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한편, 대만의 경우 우리와 유사한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을 운영하면서 출제문제를 공개하고 있으며, 일본의 보건 의료인 국가시험도 2005년부터 정부의 정보공개 강화 정책에 따라 공개하고 있다.

출처: 김상훈 의원실

인재근 의원,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솜방망이 처분 지적

더 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도봉구갑)이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는 2013년 4건, 2014년 4건, 2015년 6건, 2016년 4건, 2017년(~7월) 2건으로 나타났고, 직종별로는 영양보호사가 10건, 위생사와 치과의사 예비시험이 각 2건, 이어 임상병리사, 2급 응급구조사, 영양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각각 1건씩이었다.

이중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의 부정행위는 1건으로 2013년 제 41회 국가시험 당시 시험 중 전자기기(태블릿 PC)를 소지하고 있어 당회시험 무효 처분을 받았다.

응시제한 횟수에 대한 기준은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1~3회로 나뉘는데, 대리시험의 경우 최대 3회, '휴대폰 소지'는 최대 2회까지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인재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시원에서 적발한 3건의 대리시험의 경우 모두 당회시험 무효 처분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한 명은 바로 그 다음해에 치러진 시험에 응시해 합격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휴대폰을 소지해 적발된 7건의 사례 중 4건은 '당회시험 무효'처분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조종면허, 국가기술자격, 공인중개사 등의 경우 부정행위 적발 시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응시제한을 두고 있다"면서 "반면 보건 의료인 국가시험에서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수준 이하로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시원은 더 이상의 고무줄 처분이 없도록 부정행위자 처리 지침 등 관련 내규를 정비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 의료인 국가시험이 더욱 공정하고 엄격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부정행위자 처분규정 강화 등 관련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인재근 의원실

「결핵안심국가」사업 추진 중간결과 발표... 의료기관 종사자 양성률 18.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해 3월 2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인 결핵 발병 지표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선제적 예방에 중점을 둔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논의·확정하였다.

올해부터 보건당국과 관계부처(교육부, 법무부, 병무청)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종사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고교 1학년, ▶교정시설 수용자 등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내무반 등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군부대는 전염 우려가 높아 사전 예방이 중요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약 34만 명에 대해 올해 1월부터 잠복결핵감염 검진이 추진되고 있는데, 병무청 주관으로



검진대상자	대상자 수	검진자 수 (검진율)	양성자 수 (양성률)	평균연령	
집단 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120,000	115,389 (96.2)	21,240 (18.4)	36.6세
	어린이집	140,000	110,682 (79.1)	22,411 (20.2)	39.9세
	사회복지시설	118,000	72,604 (61.5)	21,386 (29.5)	47.0세
	계	378,000	298,675 (79.0)	65,037 (21.8)	40.4세

올해 3월부터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내 결핵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보건당국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 추진 결과, 8월 31일 기준, 의료기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검진 대상자 약 37만 8천 명 중 79.0%(298,675명)에 대해 검진을 추진하였고, 21.8%(65,037명)가 양성자로 확인되었다.

이중 집단시설 종사자별 양성률은 의료기관 종사자 18.4%(21,240명), 어린이집 종사자 20.2%(22,411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9.5%(21,386명)이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상기 양성률의 차이는 집단시설별 차이보다 연령구조(고연령층이 많을수록 양성률이 높아지는 경향, 집단별 평균연령의 차이)의 차이로 집단 간 통계 비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행되고 있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약 34만 명 중 71.2%(242,863명)에 대해 검진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2.9%(7,105명)가 양성자로 확인(8.31 기준)되었다.

그리고, 고교 1학년 학생 전체 약 52만 명 중 희망자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잠복결핵감염 검진이 교육당국 협조 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중간결과로 희망자 약 30만 명 중 51.8%(155,536명)에 대해 검진을 완료하였고, 2.3%(3,609명)가 양성자로 확인(8.31 기준)되었다.

또한 결핵 발병 가능성이 높고 집단생활을 하는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이 법무부 협조로 시행되고 있는데, 9월 15일 기준, 교정시설 수용자 약 3만 8천 명 중 5.3%(2,030명)에 대해 검진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이길현 경운대 임상병리학과 교수팀, 한국연구재단 '생애 첫 연구사업' 선정



경운대학교 임상병리학과 이길현 교수가 최근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는 '생애 첫 연구사업'에 선정됐다. '생애 첫 연구사업'은 이공분야에 연구역량을 갖춘 신

진 연구자(39세 이하 전임 교원)를 대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진행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이번에 선정된 이길현 교수의 신규과제(ERGO-7을 이용한 알츠하이머 치료를 위한 연구)는 말굽버섯에서 추출한 생리활성물질인 ERGO-7을 이용해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 저해능, 뇌신경세포 염증 억제 효과 및 뇌세포 보호를 규명하고 새로운 인지기능향상 물질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팀은 올해 10월부터 향후 3년간 총 9천만 원을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한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일반봉사단 안내



WHERE?

월드프렌즈 코이카봉사단은 대한민국 정부가 파견하는 해외봉사단으로 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990년부터 1만여 명이 월드프렌즈 코이카봉사단으로 파견되었으며, 현재 1,400여 명의 단원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동구·CIS, 중동 지역의 40여 개 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WHY?

KOICA해외봉사단은 2년동안 40여개국의 개도국에 파견되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지구촌 이웃들과 우리의 발전경험을 나누고 그들의 경제 사회발전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주요 무상원조사업의 하나로 외교통상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바탕으로 우리가 비교우위에 있는 공공행정, 교육, 농림수산, 보건, 산업에너지 5개분야 30여개 직종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직종을 살펴보면 특기나 전공을 살려 전문성 있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WHO?

보건분야에서는 임상병리, 간호, 물리치료, 방사선 등 직종을 모집합니다.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 봉사정신이 투철한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해외봉사활동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심신이 건강한 자
- 개발도상국이 요청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남자는 군복무를 필했거나 면제된 자
- ODA 교육원 강의수로 또는 ODA 자격증 소지자 우대

HOW&WHEN?

<모집>

- 해외봉사단 모집기간에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제출
- 연간(6회) 모집, 모집 시 분야별 선발(12기 오는 12월 모집 예상)

<선발>

- 1차전형: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 직종과 관련된 전문성 검증 (학력, 경력, 자격증, 자기소개서 등)
- 2차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일반면접 및 기술면접, 해외봉사적합도 검사 실시
- 신체검사, 신용조회, 신원조회 통과 필요

<발표>

- 국내교육대상자 발표 모집부터 국내교육대상자 발표까지 8주 내외 소요

<교육>

- 국내교육: 현지어교육, 자기계발, 봉사정신함양을 위한 8주 내외의 합숙교육 참여 (당해년도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현지적응교육: 파견 후 현지어 심화교육 및 현지문화습득, 파견예정기관 OJT 등 현지 정착을 위한 8주 내외의 합숙교육 참여

<봉사활동>

- 해외봉사활동: 출국일로부터 2년간 활동

WHAT?

<지원내역>

- 국내교육: 국내교육수당 및 운동복, 생필품 등 교육에 필요한 물품

-출국

- 출국준비금, 항공료, 항공수하물료, 여권 및 비자 발급대행, 예방접종

-해외봉사활동

- 생활경비: 현지정착비, 현지생활비, 주거비 활동경비: 현장사업지원비, 활동물품
- 안전관리: 상해 및 재해보험, 긴급의료지원 서비스(국제SOS보험)가입 건강관리: 건강검진, 의료비, 의료상담 제공

-귀국

- 귀국준비금, 항공료, 화물택송료, 국내 정착지원금

-귀국 후

- 취업정보지원센터, 해외봉사단 지역 네트워크, 한국해외봉사단 연합회(KOVA) 활동, 월드프렌즈 장학금, 활동경험담 출판 지원

● 회원참여코너

2017년! 럭키기!

병리협보를 열독하는
당신을 위한 이벤트!

“ 병리협보에서는 정회원 분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호 병리협보에 없었던 이미지를 찾아, 그 번호와 함께 가장 좋았던 기사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총 7분을 추첨하여 통합모바일문화상품권을 증정하고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다음 병리협보에 게재됩니다. 기당첨자는 추첨에서 제외됩니다. ”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1) 접수기한 : ~ 2017년 11월 22일까지 도착
- 2) 접수방법 : 접수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이메일 (kamtreporter@daum.net)로 발송

- 3) 접수양식 :
 - 이번 호 병리협보에 없었던 사진의 번호 :
 - 가장 좋았던 기사와 간단한 코멘트 :
 - 개인정보 : 성명, 전화번호, 연락처(상품권을 받으실 휴대폰번호)

[제417호 정답 및 당첨자] 1번

- **김미지 회원:** 서울특별시임상병리사회 회원문화체험 개최에 관한 기사가 가장 좋았습니다. 회원들이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부산시회도 이러한 행사들이 많이 기획되어 개최되기를 기대합니다.
- **김혜원 회원:** AAMLS 사상 최다 인원, 국가 참가 기사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부산에 아시아 임상병리사들이 모두 모인다는 그 자체가 감동적이고 영광스러웠습니다. 모두 한마음 한 뜻으로 모여 임상병리사의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고, 교육내용 또한 풍부하여 많은 공부와 볼거리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 **노가람 회원:** 크고 작은 이벤트로 참가자에게 기쁨을 이란 기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복체험 및 한국의 전통놀이 등 일상생활에서 체험 할 수 없었던 기회들을 이번 AAMLS를 통해 이벤트로 진행을 하니 재미도 있고 감동, 그리고 배울 점도 많았습니다.

- **박은아 회원:** AAMLS 기사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4년마다 열리는 AAMLS를 통하여 최신 식견을 공유하고 임상병리사의 전문가적 자질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차기 학술대회부터는 2년마다 개최된다고 하니 더욱더 기대가 되고 파티아에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 **정재화 회원:** 검체검사 수가인하의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협회에서 회원들을 위해 문제해결을 하기위한 노력이 보인 것 같다.
- **허승아 회원:** 협보에 있는 기사 중 한국의 아름다움과 아시아의 화합을 보여준 공식행사가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참가자들이 허물없이 함께 어울리고 즐기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부산의 임상병리사로서 참가자들이 부산의 아름다운 석양과 야경을 함께 느낄 수 있게 해주어 이런 행사를 주최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자출결 이용방법 안내

▶ 사전등록 완료 스마트폰 사용자

- 1)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검색하여 앱을 설치한다.
※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앱스토어(iOS) 접속 후 "임상병리사" 검색
- 2) 홈페이지와 동일한 ID/PW로 로그인하여 메인 화면의 마이페이지 클릭
- 3) 하단의 <열림>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전자카드 하단의 바코드가 잘 보이는지 확인
※ 보이지 않는다면, 휴대폰 설정에서 폰트 사이즈(글자크기)를 줄이고 앱 재실행
- 4) 교육 당일 등록대 방문하여 입실모드에 회원 전자카드 내 바코드를 바코드 리더기에 스캔
- 5) 인쇄된 명찰(영수증 겸용)을 잘 보관
- 6) 수업 완료 후 퇴실 시 퇴실모드에 명찰 혹은 앱 (회원전자카드) 바코드 스캔
※ 입실부터 퇴실까지의 시간이 합산되며, 4평점 신청 시 4시간 이상 이수

▶ 사전등록 완료 2G폰 사용자 및 앱 미설치

- 1) 등록대에 설치된 태블릿 pc에 전화번호를 입력
- 2) 태블릿 pc에 서명과 사진 촬영(미정)을 진행
- 3) 사전등록대로 이동하여 명찰을 수령
- 4) 퇴실 시에는 명찰의 바코드를 스캔

▶ 현장등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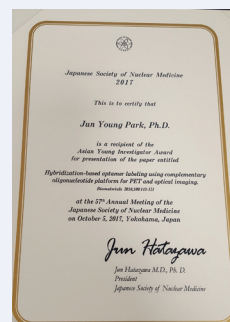
- 1) 등록대에 설치된 태블릿 pc에 전화번호를 입력
- 2) 태블릿 pc에 서명과 사진 촬영(미정)을 진행
- 3) 현장등록대로 이동하여 결제 및 명찰을 수령
- 4) 퇴실 시에는 명찰의 바코드를 스캔



회원동정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 박준영 회원(소속 신촌세브란스병원), 제 57회 일본 핵의학 학술대회 아시아 젊은 과학자상 수상



2017년 10월 5일부터 8일까지 일본 요코하마 국제 평화회의장에서 열린 제 57회 일본 핵의학 학술대회 (The 57th Annual Scientific Meeting of the Japanese Society of Nuclear Medicine)에서 연세의료원 신촌세브란스병원 핵의학과 박준영

박사가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의 Hybridization 기법을 이용한 압타머의 분자영상기법 연구'라는 논문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올해의 아시아 젊은 과학자상 (Asian Young Investigator Award)을 수상했다.



CAP 인증기관



ISO9001 인증기관



KSLM 인증기관



재단 **씨젠의료재단**

Seegene Medical Foundation

글로벌질병검사전문의료기관

(재)씨젠의료재단이
27주년이 되었습니다.



ANNIVERSARY

한결같은 성원에 감사드리며,
항상 최선을 다하는 씨젠의료재단이 되겠습니다.



Perfect Quality

질병검사전문의료기관

(재)씨젠의료재단은
품질 완벽주의를
추구합니다

검사의뢰 및 학술문의

1566-6500

www.seegenemedical.com